

人情悲劇小說

불상한남매



京城大成書林發行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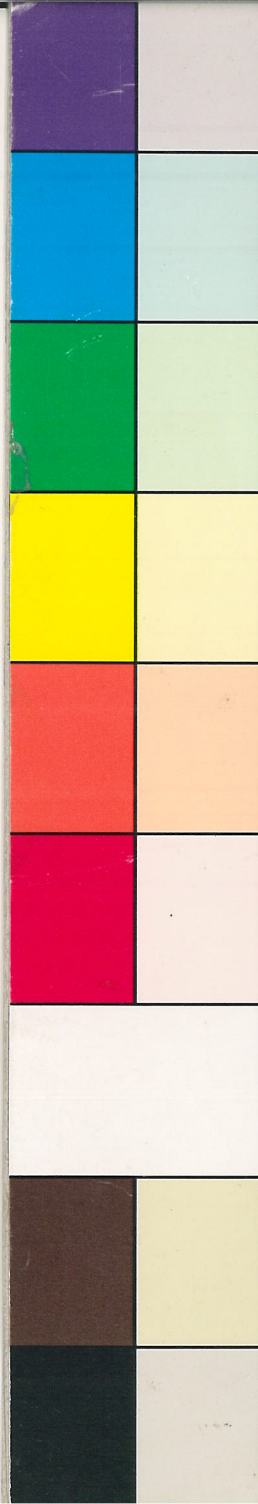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Inches
1 2 3 4 5 6 7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人情悲
劇小說
불상한남매

淚 香 作

서울서멀니 떠러진 시흥쌍(始興)에 천만수(千萬洙)라 하는 포목행상(布木行商)이 있다

그의 장인(丈人)씨지는 서울종로에서 『동신호』라고 하는 주단포목상(綢緞布木商)을 하얏섯스나 장인의 큰딸이 소행이 부정(不貞)함으로 그의 부모는 소문을 두려워하여 박춘만(朴春滿)이라는 사람을 데릴사위로 삼았더니 그 데릴사위가 지극히 불효하고 성질이 고약하여 성실치 못한 중에 도박도 하고 기생오입도 잘하는 팔난봉이여서 결국은 가재(家財)를 탕진하고 남의 게빛까지 지게 되어 몸을 빼쳐 어대토인지도 망하여 바리엿다 그리하여 할일 없시 상덕문을 닦치고 작은 딸의 데릴사위를 보니 그 사위가 지금 포목행상으로 다니는 천만수(千萬洙)라는 사람이 엿다

만수의 안해와 그 집 딸과는 리복(異腹)의 형제이엿섯고 만수와 큰딸의 생모와 식귀하는 것이 이 집안을 망하게 하얏든 것이다 두 딸의 성품이 판리하게 달너서 적은 딸은 착하고 인후한 부덕이잇는 사람이엿고 큰 딸은 괴악한 부덕녀이엿섯다

| | | |
|-----|------|----|
| 登錄番 | 3196 | 類番 |
| 分番 | | 書番 |
| 圖書番 | | |

그럼으로 부친이 항상 말하기를

『처음부터 자근설만 데릴사위를 잇고 큰딸은 식집을 보냈든들 이집이 이러케 결단나지 아니하였을것을 공연히 그리하였다』

하면서 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작은딸의 생모도 죽어버렸었다

지금은 만수가 안해를 다리고 장남복상(福相)이와 장녀신애(信愛)와의 네식구가 되어 살고 그간 동신호는 남의 개념어 갖고 큰집도 빚에 저장되었습으로 거의 재산이라고는 업서 졌다마는 선친(先親)이 세친유덕으로 시흥(始興) 땅에서도 굴지의 명망가가 되어잇었다

『그전과가튼 동신호는 업슬지라도 엇더케 하든지 적으나마 덜포하나라도 내여 보고죽었스면』

하는것이 만수의 숙원(宿願)이다

그는 지금은 초록보에 필옥을 싸가지고 억개에 걸고 경향각디를 도라다니는것이 그날그날의 직업이엿었다 집에서는 그안해가 필옥도짜고 얼마간의 밧을 사서 채전(菜田)도하고 딸신애는 학교에 다녀오면 그대로집안에서 그의어머니의일을 도와주기도하야 삭바누절감도잇스면 밤을 새여가며일을하니 나희는 열닐곱으로 이촌에서는 평판이 높흔 처녀이엿다

그러나 다만 오라버니가 집안에 잇지안헿스니 그아바지는 그곳보통학교를 졸업한것을기다리어 복상이를 서울에 느상가에 보내여 견습을식할작정이엿섯스나 아들복상이는 장사를실허함으로 학교를졸업한후 얼마안되어 서울노

다러나 그와면일가가되는 변호사의게 올고부터 낮에는서생견습이되고 밤에는야학에다니엿섯다가 반년(半年)도채못되어서 주인이게 충실히보이여서

『이제겨우 고등보통학교에입학이되엿습니다』

라는편지가왔섯고 그는 십년을하로와갓치 고학을계속하얏섯다

어느날 그의어머니가 훗옷한벌과 유지(油紙)한장을 가지고방으로 드러오며

『애 신애야 편지좀써다오』

하니 신애는

『옴바의게요?』

『오냐 가려 입을 옷싸지 대게하야서야 천씨의게미안스럽지안흐냐』

천씨라는사람은 복상이가 폐를제치고잇는 변호사의성이엿다 신애는 옷을바더서놓더니 벼루와조희를 신내면서

『어머니 무엇이라고쓸가요?』

그의어머니는 무엇을한참 생각하더니

『저! 옷부터싸라 적삼고의 각두벌 전시약간』

『아이구 그런것싸지 어머니는 언제든지 오라버니를 어린아희로만 아시나봐』

하며웃다가 신애도 반지그릇에느어두엇든 열낭에서 십전짜리 은전셋을조희에싸고싸서 어머니몰내 비밀히 옷틈에느어쑤다 그러는사이에 아버지가다녀왔다 모녀는 반가히마지며

『아버지 다녀오십닛가』

『오늘은 해가잇서오시는구료』

하며 인사를하얏스나 평일갓흐면 주인은

『겨우 인제야왔다』라든지 『로곤하다』하든지 무엇이라고하든지 하며 인사를받가히 바들것인데 오날만은 잠々히 달다쓰다는 말한마디도업시 방으로도

러가서 곱방대에 담배를담더니 손바닥에 담배무든것을 털고 담배를부치지도 안코 물고 만안저서 먼산만바라보고잇섯다 신애는 그의압흐로오더니

『아버지 오라버니의게 옷을부칠터인데 무엇부탁할말삼이나 업습닛가』 하니 그의아버지는 귀치안흔듯이

『업서!』

하고 말한마디를하더니 아모말이업섯다 신애의어머니가 드러와서

『여보 당신의필육집은』

하고 무려도 대답도업시 팔장을제고 고개를숙이고잇다 모녀는 걱정이되여서 서로마조보더니

『아버지께서는 필연코 무슨근심되는일이 잇나보다』

하니 신애도 근심스러운낫으로

『글세요 신색이 대단히변하섯는데요』

하고 대답을한후 모녀는그의것을써나 밧그로나오며 뉘한숨을서로 쉬엿다 얼마잇지아니하야 만수는 담배스대를 허리에썩고 방문을여니 밧게섯는 모녀

는 가치니러스며 그의안해가

『어디가시오?』

하고 답々하야 무려보니 그제야 간신히입을버리며

『수원까지갓다오지!』

하며 말을썩치니 만수가사는 시흥읍(始興邑)에서 수원(水原)까지 한오십리나된다 그의안해는다시궁금한낫으로

『수원까지요? 그러면 저녁을잡수시고 가시는것이 엇더하시오』

하니 만수는 또아모말이업시 집신을 신는다

『저! 여보시오 그러면 저녁을싸서되릴싸요』

만수는 드른체도안코 짜리문밧그로나갓다

엇전줄을모르고 모녀는 가슴이 두근／＼하얏섯다

만수는 그전날밤 썩점거리(餅店) 래창포목점(泰昌布木店)에서 서울대동상점(大同商店)으로가는 현금오백원(五百圓)의부탁을바더 조심스러히 전대에느

어배에차고 다니엿섯는대 어데서싸젓는지 누구의게 빼앗겼는지 도모지알수 업섯슴으로 허둥지둥하면서 그곳주재소(駐在所)에도 계출(届出)을하고생각

나는대로 차저보아도 찾지를못하얏스나 그것치만 남의게마른돈을 모른다고 그대로견딜수는 업섯다

법률상은엇젓든 신용관제로 무슨짓을 하던지 오백원은 무려노아야 할것이나 그의지금처지로는 쉬운일이 아니엿다 그는생각다못하야 일시에 어대서든지

빚을 어더 돈임자의게 갚다 주고 채금(債金)은 차츰 갚히갈 생각을 하얏섯스나 어
데가서 취하게 될는지가 큰 걱정이엿다 그리자 수원김덕수(金德秀)를 생각하
되엿스나 김덕수는 대수로 만수의 집에 출입하얏섯고 그의 부친생존시에 서울
서사환이 되여 그의 나희열한살때부터 동신호가 몰락할때까지 동신호의 밥을 먹
은 사람이엿섯다

오륙년전까지는 서울때를 메고 경향간으로 다니면서 무죄를 사서 모아 팔다가
요지음 이삼년동안에 선뜻 〈성공을 하더니 지금은 서울에다 철물상(鐵物
商)을 낸다느니 수원에다 큰집을 신축한다느니 아주 큰 부자가 되엿섯다 그리하
야 만수에 게서도 그전에는 여러번 돈을 취해간 일도 잇섯스나 물론 그것은 룽
철년전의 일이엿섯고 지금은 피차간 한푼도 대차관계는 업섯섯다 그러나 만수
는 생각 다 못하야

『덕수의게나 가서 한번 청해보자 설마 인정간에 아니 취해주지는 안겠지』
하며 수원으로 급히 갔섯다 그가 서흥서 떠난 것이 오후 두시 이엿는데 거름을 재
축하야 수원에 다다르니 밤여덟시 전이엿다

김덕수의 집은 서문밖 서호(西湖)가 이엿섯다 전에는 정검다리 것헤 잇든 적은 오
막사리집이엿섯는데 지금은 화홍문(華虹門) 옆 냇은 그 지에 성갓치 뻗 돌담
에 회철한 것이 눈갓치 보인다 정검다리가 변하야 돌다리가 되고 집으로 나엿든
절웅이 당당한 기와집으로 변하야 오랜집가치 보이려고 높은 담압해는 큰 나무
를 심어 그 나무가 점々が 지를 버더 안채의 룽과 만이 보이엿고 푸른 냇이 시원스

럽게 냇살을 버더 문기둥을 에워쌌는데 『김덕수 본래』 이라는 옥문패가 푸른 냇
사이로 내다보엿다

이집가죽은 주인덕수 외에 그의 안해와 딸과 하인등이 다섯식구이고 덕수는 한
달동안에 불과 십여일 간은 집에 잇섯고 집에 잇기보다 서울에 잇는 날이 더 만
다 서울상정은 그의 심복인 철순(哲淳)이가 맞쳐보고 그의 하는 일은 경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엿섯다 덕수의 안해는 일년동안에 두세번밖에는 서울에
가 지안엿섯고 그의 큰아들은 고리대금하는 아버지와 독한 맹수와 가튼 계모의 학대
를 이기지 못하야 일죽여 헌 어머니를 생각하며 집을 떠나서 지금은 서울경성대국
대학예과(京城帝國大學豫科)에 통학을 하는대 해마다 하리휴가에 귀성하는 외
에 평일에는 고향에 오는 날이 업섯다

만수가 덕수를 차처가랴 할때 덕수는 때맞침 만원에 갓가운돈을 가지고 집으로 온
때이엿섯다

『오늘 밤안으로 림참봉(林參奉)의게 갓다 맥겨야 안심된다 그러나 몸도 고단
하니 래일이 나갈까』

하면서 덕수는 그돈을 금고에 넣어두엿섯다

림참봉이라 하는 사람은 수원성내(水原城內)에서 오래 인부호인데 덕수는 그집
에서 돈을 융통하는 터이엿다 아모리크게 장사를 할지라도 한두사람의 전주는 항
상가지고 잇는 것이 다

요사히 두눈을 알코 잇는 안해는

하며 사랑방으로 나와서 화로를압해놔코만수와 마조안게되였다. 한사람으로 말하면 필육행상이오 또한사람은 털물상을 크게하는 주인이였스나 그대로그 전날에 주종의관계가 잇섯슴으로 연분은 아직까지도 니줄수는업섯다 그럼으로 상좌(上座)에만수를안치고 덕수는 공손스럽게 그의온뜻을못게되였다

「무슨 별한일이생겼습닛가?」

「덕수 특별히 청할일이잇는데 들어줄는지」

「네 무슨일임닛가」

「자네의게 돈을좀 취하랴고왔네」

「얼마나 소용이되심닛가」

「오백원만 취하야주려나」

「네 오백원.....요」

「엇던가 취해주겠나 지금의처지로 오백원을 일시로는 도저히갑기 어려우니 월수로라도정하야 갑도록하고 리자도물론주지」

「덕수는 니마썰을 찢푸리면서 잠々하고잇섯다 만수도 말업시안젧다가 다시말을내이며

「실상은 어제저녁에 남의게맛든돈을 어디서 엿쟁는지 분실하야버렸슴으로.....」

하며 사정을말하자 또말을니어서

「무슨짓을하던지 갓다주지안으면 법률의죄인이되는것보다도 나의신용을닐

「아모조록 될수만잇스면 오날저녁안으로 갓다맏기시요 그것이 안심이되고 조치안소」

하며 남편의게주의를식히며 그리고 요사이집에와잇는썰도 그말에채족을하니 「아버지 그러는것이쫓습니다 적은돈과달나 큰돈이닛까」

「덕수도 이말을듯고 다시생각하야보다가

「큰돈이닛까 래일아침에갓다주어야지 성안싸지지금가자면 길도힘하고 불행히도적의게 쫓기면 솔나무숲속에서 목숨이다러날는지도 아지못하는일이닛까」

하며 대답을하얏다

이런말만드러도 몸서리가치는 그의안해는 그털쫓함으로 그말이쫓나자 다시는그일에대하야는 아모말도아니하얏다 그러자 마침 만수가차저왔섯다 하인복이가 썰을거쳐 안호로드러오더나

「주인영감 동신회의영감이 차저왔습니다」

하며 말을주인의게 전하얏다 주인은 그의말을듯고

「동신회영감이오섯다? 서흥영감말인가」

「네 그러습니다」

주인은 다시 고개를돌녀 그의안해를 치여다보더나

「여보 동신회영감이왔다고 순이(큰썰의일흔)더러사랑으로 모시라고 하오 그런데 지금무슨일로왔나?」

케되는 것이 참으로 괴로우니까 덕수 나를 구하여 주는 셈으로 일시만 돌려 주지 않겠나.....응」

『그야 다른 사람과 달리 영감의 일이니 엇더케든지 해서 되리고 심흐나 나역시』

덕수는 머리를 긁으며
『요사이 손해만 내리당하고 잇슴으로』

『지나간 달에도 만히 버렸다는데 그러나 소문이라는 것은 당초에 미들수업은 것이지 나의게 대하야서는 오백원이 큰 돈이나 자네의 지금 처지로는 참으로 적은 돈이니 은행에 댄 거두는 돈을 잠깐만 융통해 준다면 사람하나 살려 주는 것과 갖헤이』

『얼마아니 된다고 말삼하지 마는 오백원이라는 돈은 여간해서 버려지지 않는 돈이니 싸말씀이지요』

『덕수 오해를 해서야 되나 무슨 오백원을 그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시 융통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지』

『그야 말삼하실 것도 아님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부자지간이라도 오백원을 그저 주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해도 옳을 것이 잇사요』

『그러면 돌려 줄 수 없다는 말일세 그러』

『네 못처럼이 심니다 마는 될 수 업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잇스나 업스나 사하기 변하기 쉬우니 사요』

내가 갑지 안출사하는 녀려겠지 마는 내가 이만한 나 회가 되기까지 한번도 남의게 해를 제쳐본 적이 업는데 내가 남의게 해를 남은 일은 잇지만 그래도 내주니에 돈뿐이나 잇을 때에는 빼남의게 융통도 하얏지 이러케 말하는 것은 좀 엇지생각할는지 모르겟스나 그전에 나도 자네의게 두서너번이나 취해 준 일이 잇지 안했섯나.....허허.....』

『네 알겠습니다 나는 빌려 주었는데 너는 취해 주지 않는다는 말삼이지요 의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른다는 말삼입니다 그러』

『여보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지내간 날에는 그러했다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덕수는 별안간 얼굴빛이 변해지며

『네 의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른다는 말삼이예요』

하며 만수의게 대하야 큰소리로 쩌드니 그의 안해와 큰딸 순이도 별안간 놀내여 밧그로나와 서문뒤에서 그들의 하는 소리를 듯게 되였다

『덕수 그것은 자네가 오해일세』

만수는 순수히 말업서 달내고자 하였으나 덕수는 더욱 큰소리를 지른다

『네 나는 의리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입니다 몇십년 동안이나 동진호의 사환노릇을 하면서 밤에 단잠도 못자고 일을 한 날도 잇섯는데 동진호가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다만 얼마라도 줄까 아렸더니 고향으로 가 달라고 하면서 거이 빈손으로 보내니 몇십년 부리고 그럭저럭 주인노릇을 한다면.....참 배장

이 틀림이 다 여보영감 내가 지금 이만한 몸이 된 것은 나의 힘으로 팔다리로 번것입니다 님의 은혜를 바든 것은 손톱에 매만치도 업스니 안심하십시오 그런 데다가 오백원의 돈을 취해 달내서 주지 않는다고 의리를 모른다니 은혜를 모른다니 참 말도 잘하지 사람의 마음이 조와도 분수가 잇는 것이야 흥 참 배심도 조치

이 말을 듯던 만수는 불쑥 일어나며

『덕수!』

『뭐 덕수라』

『아니 동서도 분간 못하든 어릴 때부터 몇십년간을 동신호의 밥은 먹고 자랐는데 네일 홀쭉 못부른 것이 무엇이니 에 참 너는 팔하나 다리 하나로 이럭케 되었다고 썬들지 마는 어디 깨 되게 한 것은 누구인지 알기나 하니』

『응 그러니까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오백원을 갚는 것이니』

『무례한 말을 마라 동신호 만수는 망하기는 하였을 지라도 아직은 은혜를 파려 돈을 갚는 것이니 아작한다』

『그러면 왜 오백원은 달라고 썬들 쓰나』

『뭐 썬들 쓰……』

『흥 썬들 쓰야 썬들 쓰기 위하여 일부러 발중에 나온 것이 아니요』

『개소리를 마라 너의들의게 썬들 쓰려는 만수로 아냐』

『그것 참 우습군 지금껏 오백원의 썬들을 쓴 것은 니 져나 서흥서일부러 내 집까지

뒹하러 와서 썬들은 것들 모양으로 밤에 놀러 왔나 돈에 탐을 내서 도적질 하러 왔나

………가만 두너

만수는 기가나서 덤벼스나 덕수도 지지지는 안었다 올랐다 내렸다 치고 싸리고 차고 하야 쌍방이 되게 싸웠다 문뒤에서 듯던 그의 안해가 하인복이를 들여보내니 복이는 설흔대여섯되는 장골이 엮음으로 주인이 급한 것을 보고 별안간 뛰여드러 만수의 등을 치니 덕수도 싸라 괴운이 나서 마음껏 치고 싸리더니 하인을 식혀대 문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여그제 오너라 죽일 자식』

하며 대문을 꼭 닫고 하인과 주인은 안으로 드러갔다 만수는 문전에 쓰러져 분김에 후후 울며 니를 갈면서 몇 번이나 내려가서 다시 드러가서 싸호려다가 다시 주저안져 울었다 아모리 생각하야도 분하얏다마는 그러라고 엇지 할 수는 업섯다 그는 문압해서

『덕수야 이놈 잊지 마라』

하고 부르지도며 분함을 겨우 참고 초연히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의 집에는 안 해도 잇고 딸도 잇고 서울에는 아들도 잇섯고 분을 풀만한 나희도 아니요 몸도 아 니였다 이와 갓치 생각하며 이럭저럭 거러 갔스나 분실한 오백원의 변동할 생각을 할 때마다 덕수놈의 미운 생각이 나서 말이 뒤로 걸리는 것 같았다 어느덧 밤은 깊 허서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하야 별은 공중에서 눈을 깜작이며 잇고 산은 널니 겁게 보이고 나무도 자고 집도 자니 모든 것이 다 아 자는 것 같아 얏다 눈을 뜨고 것은 것

은 넓은 세상에 만수 하나뿐이었다 얼마를가다가 그의 랑심에는 아름다운 일이 생겼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이다. 덕수를 책하는 것은 잘못이다. 선악은 하여튼 폭력으로만 싸우려 하는 것은 만수이었었다. 말다툼이었었다. 명백히 은혜 제천 말도 하였었다. 잘못했다. 그의 게릴고심다 이와 갓치 생각하야 보니 잊었던 지 서로 쫓게 지내고 심했습으로 다시 발을 돌니키여 덕수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대문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었으나. 굿게 닫혔습으로 다시 뒷문으로 가서 문을 흔들며

『덕수 문 좀 여려 주게 내가 잘못했네 서로 늙은 나 회에 싸움이 무엇인가 사히 조 케사 화하고 심흐네 하여간 한번 만나 보게』

하며 문을 흔들다가 자세히 보니 문이 아작다치지 아니하였습으로

『온이런 문이 열렸는데 공연히!』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대문 한 짝을 열고 안으로 드려스라 할때 누구인지 달려나 는 닭모양으로 뛰어나오다가 만수와 부드쳤다. 그리되여 만수는 그의 발에 걸려 벌떡 잡바졌다가 내려서 보니 벌서 그의 압해는 아모것도 없었다. 그는 사람인지 깨인지 무엇인지를 아지 못하였다

『무어야 잊진일이인가』

하며 사방을 돌나눈으로 돌려 보니 그의 압해 무엇인지 빛나는 물건이 찌러져 있 습으로 갓가히가서 집어 보니 그것은 피투성이가 된 날카로운 단도이었다

『앗.....』

만수는 무심히 부르짖고 던지자 어데서인지 사람의 발자취 소리가 들니었다. 만 수는 잊절출모르다가 만일 그의게 붙잡히면 큰일이라 생각하고 그곳을 피하야 그의 힘잇는대로 뛰여다려나다가 무서운 마음에 뒤를 도라다 보니 검은 거림자가 그의 뒤를 쫓아온다. 만수는 악가 그것을 보고 도적인 줄 알고 죽을듯이 도망하였

었다

마음에 갓가히와서 갓분숨을 쉬이며 그가 오는 압을 보니 쫓아오는 검은 거림자는 보이지 아니함으로 그는 그제야 겨우 마음을 늦코 밤길을 시흥으로 급히 거러 자 괴집문 앞까지오니 날은 새여서 사방이 희미하게 밝어지고 이웃집 시계는 새로 다섯시를 친다

만수의 안해는 잠을 잘수 없었스니 만수가 집을 나야 할때부터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은 두근거리여서 도중에서 변사나 혹시 잇슬까 녀려하면서 남편의 도라오기 만기다리고 잊었었다. 짜리문을 반쯤 여려놓코 남편의 무사히 도라오기 만기다려던 안해는 만수의 도라오는 것을 보고 안심하거다가 남편이 그의 압으로 갓가히오 자 그는 그의 남편의 옷과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악여보 잊진일이요』

하며 놀나니 만수도 눈이 둥그래지며

『언젠일이라니 왜.....』

『저 옷에 피가.....』

피라는 말은 들은 만수도 선뜻하였다 정신을 차려 자기의 옷을 이리저리 보니 원

몸이 피투성이가 되엿섯다

『어디 닦치지안흐섯소』

하며 안해는 녀려롭게 물었스나 만수는 다시 말도 업시 우물가로 갔다 그는 옷을 벗고 속적삼만 입고 대야물에 손등의 피를 씻고 잇슬 때에 수건을 든 안해가 얼굴 이새과랏게 되여 뛰어나 왔다

『여보 순사들이 왔소』
조곰도 놀란 빛도 업시

『순사가 왔스니 엇제란 말이야』

하며 진중하얏섯스나 그의 하는 모양이 안해의게는 일부러 진중해보이는 것 같았 다 그의 안해는 남편을 주랴고 가져왔든 수건으로 눈물을 씻슬 때에 별안간 순사 다섯명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잇스니 한 사람은 정복한 경관이고 네 사람은 사복 한 경관이 엿다

『야 만수 팔을 내여』

하더니 두사람이 덤벼드러 만수를 포박하얏다 이것을 보는 안해는 괴막히게 울 고 포박을 당한 만수는 모든 것이 꿈결 같하야

『왜 이러시우 나는 아모죄도 업습니다』

하며 괴막힌 소리로 말을 하니 사복한 일인 경관이 서투른 조선말로

『제가 잇서 어부서 주재소가』

하며 무지한 구두발길로 그의 다리를 찬다 만수는 몸부림을 치며

『살너 주시요 어서 살너 주세요.....』 네 아모리 경관일 지라도 죄업는 사람은 포박할 수 업스니 살너 주시요』

하니 다시 조선 경관한 사람이 나서며

『그러면 일너 주마 너 엇저녁에 수원 김덕수 씨댁에 갔섯지.....응』

『네 갔섯습니다』

『한번 다녀 갔다가 다시 또 갔섯지』

『네네 그것은 김덕수와 사화하려.....』

『리유는 하여튼 두번째 그집에 가서 무엇을 했니 주인을 죽였지』

만수는 이 말에 깜짝 놀내이며 얼굴이 파래서

『네?』

『주인의 살짜지 죽이고 부리는 계집짜지 중상을 입혔지』

이 말을 듯던 안해도 깜짝 놀내며 만수도 너무나 뜻밖기여서

『아니 그런 외의 말삼은 마시요 만수가 살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며 썰니는 목소리로 말을 하니 다시 경관이

『그러면 왜 도망은 했니? 하인의 복이를 보고 마을짜지 칠 것 다 러났섯지』

『네 그것은 어긋나지요』

『안돼 안돼』

순사들은 리구동성으로 고개를 흔들며 말을 하다가

『애 도적이야 어서복이를』
하녀는 놀나니라나더니

『응 도적.....』

하더니 사랑쪽으로 쫓쳐나갔다 그러는 소리에 복이가 잠을 깨고 안방에 달녀가
슬때에는 하녀도 마당에서 비명을 지르고 나며 뛰쳐나와도 도적은 업
서젖었다 언뜻생각에 뒤스문을 바라보니 그럴듯한 거림자가 뒷문으로 나가는 것
을 보았다 그리하여 복이가 뒤를 따러나갔을 때에 다려나는 만수영감의 뒷모양
을 보게 되었었다 복이는 그길로 주재소로 가서 급히 고했다 그리하여 순사는 경
찰서에 전화를 걸고 한편으로 의사를 깨며 친척들과 동리사람들이 달려오며 야단
법석이 났다

그러나 덕수와 설은 살날수 업섯다 덕수는 도적의 목을 찔니엿고 설은 가슴을
찔니엿섯다 하녀도 중상을 당하여 죽은 줄 알았섯다가 의사의 응급치료로 얼마 있
다가 깨여났스나 팔과 등에는 상처를 바뎠섯다

피투성이가 된 금고는 문이 두쪽이나 열니엿섯스나 돈만은 그대로 있섯다 최초
경찰측에서는 강도의 소위로 판명되었스나 덕수의 안해가 어제저녁의 모양을 일
일히 이야기하니

『동신호 주인이 분명합니다 돈을 취하러 왔다가 취해 주지 아니한 것을 야속하게
녀기여 나의 남편을 죽인 것입니다 나의 눈만은 보이지 안치마는 귀로는 말도
잘 들읍니다 확실히 동신호 주인의 음성을 드렸읍니다』

『이웃에 피는 뭐야 그 손의 피는 원피나 그 래로 변명의 여디가 있니... 어서가자』
하며 칼자루로 그의 등을 밀며 포승신을 잡고 황々히 다리고 가니 뒤로 따러가는
신애와 그의 안해는 잡혀가는 그의 옷을 붙잡고 목을 노코올다가 경관의 개 쫓기여
다시 그의 잡혀가는 뒤스 모양만 찌리 문에 기대여 바라보고 있섯다

만수의 죄명은 강도살인(強盜殺人)이 엿섯다

김덕수의 집에 나러난 그날 밤의 일을 말하면
만수를 대문밖으로 내어 쫓고 나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중문을 닫고 여러가죽이
자게 되었었다 안방에 잇는 금고젖혀서는 덕수가 자고 그다음에는 그의 안해와 설
이나란히 누어 잤스며 건넌방에는 하녀가 자고 사랑에서는 복이가 자고 있섯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치고 얼마 안되어서 안방에서 자든 덕수는 비명(悲鳴)의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처음 드론 사람은 그의 안해였섯스나 그는 녀복과 가치는
병으로 하야 남편과 아들이 나물하듯이 권하얏스나 도모지 말을 듣지 안코 연화대
(蓮花臺) 생각이 났던지 붓치 만위하고 있섯스니 그런 안해가 남편 덕수의 비명을
들었스나 아모것도 볼수 업슴으로 젖혀서 자고 잇는 설을 혼드려 깨엿다

『애 애..... 아가.....』

잠귀가 밝은 설은 눈만 감고 누엇섯는지 벌떡 나려나서 졸니운 눈을 비々며 눈을 찔
보고 놀내더니 비명의 고향을 질느며 덕수의 안해도 방문을 열고 건넌방에서 자는
하녀를 불러 눈은 보이지 안출지라도 집안에 길은 자세알음으로 마루로 나와 너
머저가면서 건넌방으로 달녀가서 나죽한 목소리로

하며 복이도 한마정이나 만수를 쫓쳐갓다는 말을 하얏슴으로 범인은 동신호주
인만수로 추정되었고 다시 서울릉산에잇는 대동상덤에서도 만수를 피고로 고
소를 하얏섯다

이살인사건이 니러난지 잇를만에

『수원에 세사람을죽인 희세(稀世)의살인강도』

라는괴사가 각지신문에 게재되었다 가해자 피해자는 다갓치 서울서 일출난
사람임으로 더욱 서울에잇는 각신문에는 굉장한괴사가 게재되어자 미나게 씨
여잇느니만치 독자의 흥미를끄러 당분간은 이소문이 굉장하였섯다

덕수의집에는 조상께서 쓴치지안헛스나 만수의집에는 일가와 친척까지도와
서보기를실혀하얏섯고 니웃집사람들까지도 일골을돌녀가면서 숨어서 모자의
흉사지보며 다니엿다 그리하야 그외모녀는 눈물이마를듬이엿시

『차라리 죽는것이 조할것입니다 어머니』

『아! 참 이런원통한일이 어대잇겟니』

하며 눈물로 그날<을보낸지 닷새만에 뜻도아니한 아들복상이가 집에도라
왔다

서울에전보를한지 나흘이 지나도 복상이에게로부터 아모소식도업섯슴으로 그
의어머니는 아들까지도 만나지 못하는줄만 알엇슬때 복상이를보니 썰뜻이깃
버하면서

『아!복상아』

『아!옴바』

하며 신애도 뛰어나와 마져다

복상이는 이십이넘은 열골빛이 붉게검고 팔목이굵은 보기에도힘잇는 남자이
엿다 미명두루마기에 검은구두를신고 여러해묵은 다낡은 운동모자를쓰고 몽
둥이가튼 집패이를 마루구석에 세워놓고 우렁찬목소리로

『어머니!』

하며 방안으로 드러온다 어머니는 뒤조차

『애 그런데 댈보르보았니』

하고 무르니

『네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뭣받게닐을하서서』

하며 그의어머니는 옷소매를끄러 눈울가리고 누의동생신애도 어머니 등뒤에
서홀적홀적울고잇섯다 복상이는 그의어머니압헤 엽드리면서

『희애입니다 할수업습니다』

하니 그의어머니는다시 울음섞인목소리로

『희애이라고하지마는 여러가지 증거가잇다는구나』

『그것이희애이지요 증거갓할것도 업슬것갓흐면 그대로잇겟습닛까』

『종거가잇스닛가 구해낼수업지』

복상이는 찜작놀내며 그의어머니를바라보면서

「어머님! 어머니는 아버님이 살인강도 노릇을 할 사람으로 아심닛가」

「그런 것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변심도 생기는 것이 낫사 말이다」

「아모리 변심이 있다 할지라도 강도노릇을 할 사람과 하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안습니까 아버지 갓흔 어른은 그런 노릇도 못하십니까」

「나도 그러케 생각하지 마는..... 엇더케 해서라도 구할 수는 업슬싸 동리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아모리 하야도 사형(死刑)은 면할 수 업다는데」

그리는 동안에 등뒤에는 신애가 흘적 / 울고잇슴으로 그의 어머니도 치마고름을 눈에 대엿다 복상이 도된 한숨을 쉬이며

「반중(反證)이 생기기 전에는 변호(辯護)할 여지도 업다」

「복상이 하여간 아버지의게 한번 맛나드리려무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청하면 면회쯤은 식혀줄 것이다」

「네 별서 뵈옵고 왔습시다 변호사에게도 의론해 보았습시다 덕수첩의 하인놈은 엇젼든지 엇절수업는 것은 덕수의게 집입니다 동신희의 주인이 틀림이 업다 고 단언하는 바람에 아버님께서 만일 사형을 바드신다면 덕수의게 집이 죽인 것과 다름 업습시다 아버지도 그것을 원통히 생각하십니까」

「덕수의게 집이 아아 참.....」

「그외의 일은 엇더케 하든지 면하지 못할 것은 아니나 덕수의게 집의 증언만은 엇절수 업습시다 아모리 하던지 참된 법인이 나오기 전에는 할 수 업습시다 그대 신에 참된 법인이 나오기만 하면 덕수의게 집년의 낫작을 썩어나 오도록 글글 것

임니다」

이와 갓치 말하면서 복상이는 소라 갓흔 주먹으로 무릎을 두 번이나 치면서

「신애야 너도 덕수의게 집을 원슈로 아려라」

하니 신애도 니를 갈며

「네 원슈로 압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되어 복상이는 집에서 나간 후로 이들이 지나도 도라오지를 아니 하얏다 어머니는 궁금히 녀겨

「아마 서울로 바로 갓나 보다」

하며 신애는 「참된 법인을 차지려 갓는 가 봐요」

하고 근심으로 지낼 때 집에서 나간지 나흘이 되든 아침에 우편국에 일부인(日付印)이 찍힌 편지 하나가 왔스니 이러한 말이 써여잇섯다

법인은 쉽게 차질 슈업스나 그러나 아버님의 생사가 위급한 경우이다 내한 목숨을 던지고라도 법인을 내 손으로 잡어 보게다 긴 세월의 고생되는 것은 조곰도 두려움이 업스나 다만 아버님이 교슈대를 올라스실 때까지에는 법인을 차저 낼는 지가 큰 문데이다 단지 그것만이 녀려 될 따름이다

그런치만 한올에도 신명이 보시고잇스니 안심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기다려라 반듯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마

년

월

일

가형

복상

매데 신애의게

과연 신애의 생각한바와 같했다 그후로부터 그모녀는 북상러움을 니저바리고 어머니는 양잠소나제사공장으로다니고 신애는집안에서 침선을하면서 날을보내엿스나 그러나 눈물이마를사가업슴으로 마음먹는대로는 일이되지아니하얏섯다 다달이 남의갑을돈은 만헛섯고 소식을 알너다니는려비와 변호사의게 줄변호료로하야 모녀는아조 혈벗게되고말엿다

데일심에서 만수는 사형선고를바뎡스나 사형이라는 말을들은 그의안해는 서을지방법원의방청석에서 졸도를하야 얼마잊지아니하야 매여났스나 그후로부터는몸이성치못하얏섯다 어느날 복상의게서 또편지한장이왔스나

『불행히도 예기(豫期)한대로 사형이되엿스나 즉시공소의수속을해두엇습시다 하여간공판은 도라오는가을에나 되겟사오니그때까지는 맹서코범인을차저내여보이겟습니다 서울에 제가가서잇든변호사의게 원조(援助)를어더서 변호사로부터차입(差入)의전부를청해두엇습니다 그것만은 녀려마십시요 법정에졸도하섯다는말을들듯고 곳또처가서뵈오려하얏스나 소생(蘇生)되엿다는말삼을들듯고 면회는못하얏습니다 저는지금서울서 로동자로 변장했습니다 이삼일전까지도 여러로동자와가치 일을하얏섯스나 지금은 다시 매약행상(賣藥行商)으로 변했습니다 범인을차질때까지는 무엇이되여서어대다닐는지알수업겟습니다 염려하신덕택으로 몸은쇠와갓치단々합니다 꼭 오는가을까지에는 반가운소식을전하야 드리겟습니다 아모조록안령히계십시오 신애

야 어머니를부락한다

년

월

일

자 북상 상서

어머님전

이편지를바뎡슬때에는 그의어머니가 무거웁게 베풀어주에 누엇슬때이다 신애는 어머니의병을간호하면서 일상정력으로 바누질품을팔엇스나 하루를지내갈쌀도업섯고 오백원의빚으로하야 오막사리집까지벌서 남의손에넘어갓슴으로 할일업시 신애는 병든어머니를 다리고 동리사람의동정을바더 어느부자집행랑방에 들게되엿다

※

※

※

가을까지에는 반가운소식을 전한다든 북상의편지는 결국은헛되히도라가고말엿다 어나듯가을이와서 만수의공판이벌니엿스나 북상의게로부터는 아모소식도업섯다 가을이지나가고 겨울이와서 만수는 이심에서도 사형의선고를바뎡스나

『제가산중거이을시다 남편과쌀을죽인사람은 동신호의만수가틀니업습니다』 하는 덕수의안해의죽언이 뉘々내 만수를 교수대에보내고야말엿다

만수는 감옥에서 교회가가하는 최후의훈계인 설교를들니고나니 만수는 울면서

『부처나신은업는것이다 이세상은 어둠속이다 아모런죄도업는사람을 사형을한다니 분하고원통한일이다』

하니 신애는 마지못하여 쌀팔돈으로 전보를 하얏스니 그 전보를 받든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게는 리복에 형님이 되고 자기의게는 아주머니가 되는 사람이었었다
전문(電文)에는

『생명위독』

이라고하야 이른날이 모되는녀자가 급히왔다 그는 오십이넘은 얼굴빛이검으레 한 자기의 어머니와는 卽판인 맞치하비(下婢)와가튼 몸짓을하는 녀자이었다 주름진얼굴에 분칠을하고 복식러울만치 젊은모양을내었었다 신애는

『이것이 이모인가』

할만치 의외로생각하얏었다 신애의 어머니는 병석에서 파리한몸을 일으키려다가 힘이업서서 외한목소리로

『아! 형님 잘오셨습시다』

하며 그를반가히 마지하얏다 이모라는녀자는 나히에바하면 살이썩몸이엿섯숨으로 몸을밀면서

『아이고참 이게원일이야 언제부터 병이났섯는지 나는도모지몰났스니 그러코복상이는?』

그는 조금도서슴지안코 술々무릿스니 모다알면서『모른다』는체를하며 못는것이였다

그러나 신애어머니는 그와반대로 형을밋고 이사람외에는 의지할사람업는 신세를생각하고 눈물을써러트리면서 신세를말하얏다 이소리를 모다귀박그로듯

하며 부르지줄때에 간수장으로부터

『지금한말이 유언인가 할말은 더업는가』

할때에 만수는다시 한울을쳐다보며

『복상아 이아비의압흔밝혀다오 마누라 신애야 덕수안해의원수를 닛지마려다오』

하며런지가 무너질듯이 부르지졌다 그러나 무슨소용이잇스랴

이때감옥에는 수원경찰서로부터 전보가왔다

『만수의사형집행중지 전범체포 검사국압송중』

던옥은 간수장을식혀 만수의사형집행을 중지하얏다

※

※

※

그동안 복상이는 집을닐코 어머니와 누의를닐코 전범인의수색에 노력하고잇섯다 아버지의죽는것보다도 더욱가품을생각하고 누의에출가할일을 생각하고자고자신의전도를생각하야 강도살인의유족이라는 오명을써리싸지 빼여쳐버릴필요가 잇기때문이엇섯든것이다 그리하야 오날은동으로 래일은서로 소재도정하지못하고 집으로도라오지는아니하얏섯다 그러는동안에 그의어머니도 병이들어 죽게되었다 신애는 모든일이 손에벗지도안코 그곳자선가의힘을어디 그것으로 어머니의병구완을하고잇섯다 어느날 그의어머니는 병석에누어신애를부르더니

『신애야 덴보를노와다고!』

던형되는녀자는 일부러힘드는체하면서

『응그래 나는조곰도물나트스니 아랫드라면 엇덕케하든지 힘을 더러주었
슬것인데 형데간이라도 모르는사람과갓치 지내엿스니 참 집안도.....아
이고』하며 긴한숨을 일부러 내쉬었다

그는 리복의뺨장인만치 언제든지 그의마음은 불량하얏섯다 자기가형이되여
서 모든것을 동생의게배앗기엿든생각만은 언제던지 잊지아니하얏섯다 그리
하야 그녀자는 이번일을 신문에서보고 잘되엿다고 생각하얏섯스며 서울의동
신호가 업서지고 모녀가행낭에살게된것을 통쾌히녀기엿섯다 그는 다시 거짓
눈물을 흘리며

『너의내외가 이러케될줄이야 사람의팔자라는것은 알수업는것이야.....나
갓흔사람은 가는할것이나 호호호히히』

『형님 나의죽을날이미지안혔습니다 동생이형님의게일생의 한번인청입니다
아모조록 불상하게드려주십시오』

『그야듯지 여부가잇나 다만들밭게업는자매가아닌가 그러치만 여보게 동생
자네가말하기전부터말하지마는 나도남편을닐코 그날<을살기가어려우니
돈것흔것은할수업스니 아조미리알고말하게』

『아이고형님도참 돈때문이야합니다 내가죽은뒤에 딸아히가 누구를바라고
사러갈가를생각하면 그것이 데일 녀려가되여서 죽으랴도 죽지도못하겠습
니다』

『그러면 여괴안진애가딸인가?』

그는 신애를 자세히 치여다보았다 신애는고개를 숙이엿다

『그렇습니다』

『응애가 딸이로구면 나는물나트지 참 잘도생겼는데 얼골이동구스럼하고 상
냥하고 부드럽고 순하고 또아주 식집같나 회가얏찾는데』

『그러기때문에 하여간식집은한번가고야말것이나 그애아버지되는어른이 그
런일이잇서서 누가 잘데려가라고합닛까』

『그야그렇겠지 하엿든지 무서운소문짜지나고 감옥에싸지가잇스닛까』

『그러니말이지요 형님께 청하고십습니다』

『청이라니 어뎃케하야달나는말인가』

『네 신애를 형님의딸을만드려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신애를내딸로.....글세』

『그애오래비가잇스닛까 녀려는업겟스나 하여간 계집애닛가 남의집으로가
야지요 형님께서 조흔곳을택하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듯던 그의형님은 한참무엇을 생각하다가 무슨생각이 나는지 고개를
하며

『동생 녀려말게 내가마를것이니 자네마음은 엇더케생각하는지 물어겟스나
나는처딸자식으로알고 석 상당한곳으로 보낼것이닛까 안심하게』

『고맙습니다 인제는그만하면 지금죽어도눈을감겟습니다 신애야 이모를어

머니로 알고 그리고형님신애를부탁합니다」
그말이뜻나자 신애의어머니는 차디찬숨을쉬이더니 눈을고요히감으며 죽고
마렸다 그리하여 형식만의장사가뜻나자 얼마안되어서 신애는 이모의게살녀
가고말았다

※

※

※

인천월미도(仁川月尾島)에 근년에신축한 굉장한별장이 잇스니 이집의주인은
서울의자산가 김구식(金奎植)이였다 여름이되면 일가족이다아 이곳에와서 피
서(避暑)를하고있다가 가을바람이 선들／＼ 불게되면 서울집으로가버리고 지
금도남여잇는사람은 주인인딸애자(愛子)와 그의압해사심부름하는녀자와 별
장직이 늙은부부뿐이였다 그리고 일주간에 월(月) 수(水) 목(木)의삼일은서
울서 영어가정교수하는 선생이 반나절은 이집에오게되였스니 그교수의일흥
은 김백호라는 경성상업학교영어교수로 이십팔구세의 독신자이였섯는데 애
자의아버지도 그를적지안흔신용을함으로 특별히 애자의교수로 청하게되였든
것이다

오날도에정대로 공부가뜻나고 애자와영어교사는 마조안저 차를마시고잇섯다
그곳에 녀복이드러와서 애자를보더니

「여보십시오 날마다오는 석장사가 또왔습니다 엇더케합닛가」 하니 애자는
우스면서

「응 또왔서」

하더니 돈을내여주어 석을사게하고 애자는백호압해다 석그릇을노면서

「선생님 이것 잡주세요」

「무엇임닛가」

「석이야요」

「네 석이요? 애자는 석을잘잡수십닛가」

「저는잘먹지는안치마는..... 하하」

애자는 녀복을보면서

「이것갓다 너히들이나먹어라」

「네」

녀복은 석그릇을가지고 밧그로나갓다 애자는우스면서

「우리집식구는 모다석에는 아주실종이났답니다」

「날마다먹으닛까.....」

백호는 이말을듯더니 이상히녀기면서

「아니 그석에는 무슨리류가잇는듯합니다 그러 무슨일임닛까」

「네그렇습니다 이야기할싸요」

「네하십시요 듯고십습니다」

「이석을팔니오는사람은 십팔구세되는 가련한녀자랍니다」

「네 참 요령의녀자입니다 그러」

「아이고참 선생님도 저그리고 열골도 석어엽부지요」

「네 그래서요」

「저—지금부터 이십일전에 제가 유원지(遊園地)에서 거닐고있을때에 그녀가 이썩을팔고있지요」

「네—그래서셋습닛가」

「아니선생님 그녀자는 고개를숙이고 당초에 팔줄을물읍디다 그러는것을보니암만해도썩팔녀자는아닐것갓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멈을식혀서 썩을십전어치를산후에 그녀자의게는 반듯이무슨사정이 잇슬것갓흐니 무려보고오라고 하얏더니 부끄러워서 당초에 말을하지안터래요」

백호는 열심이듯고잇섯다 애자는말을니여서

「그러는동안에 한로동자가튼사람이지나가다가 그녀자를보고 여보이썩은얼마요 썩과는색씨가 어엿부니 썩도맛나갓지하며 놀닙니다 그리자 그녀자는얼굴이붉어지며 고개만숙이더니 그만썩목판들을고 다러납디다 그래서우리는이것을보다가 웃기싸지하얏습니다마는 다시생각해보니 매우 불상하얏습니다」

「그야 물론애자씨인만치 그리아섯갓지요」

「네 그래서곳어멈을보내보았스나어대로갓는지간곳을모르게되엿지요그리자들이지난저녁때에 제가바다스가로산보를하고잇스랴닛까 그녀자가썩목

판을들고 바다스가에서 우는것을보앗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압흐로갓가히가서치여다보앗더니 나를보고삼작놀내여 부끄러운듯이 고개를숙읍디다 아마 저를괴역한모양갓해요 왜올고잇느냐고물어보니 요전에썩을파라주서서 고맙습니다하면서 저의게 친절히인사를하갓지요 그리하야 집으로가차다리고와서 그의사정을자세히듯게되엿답니다……하하하」

「허허」

백호는 흥미있게 드르면서 압흐로 점々나오며 애자는 열성된어도로

「그리하야 그녀자의말이 유원지갓흔 사람들이만흔곳에는 붓끄러워서 그후로한번도가지안코 거리로다니면서 팔냐고하얏스나 썩사라는 소리를못하고다니엿습으로 하루에 한개도팔이지안터라고하갓지요」

「아—그야 물론팔이지안갓지요」

「네 그러치요 그래서 그녀자의이모의야단이무서워서 안팔니면 집에도팔수업고 그러타고 팔수도업고 할수가업서서 운다고하갓지요 참 불상도하지요 그래서그날도 하나도못팔고 길에서 남자들의게 조롱만밧고다니엿다하기에 하도불상하야서 제가모다팔어주엇더니 아조편조와하갓지요」

「그야 조와하갓지요」

「그래 다팔어주어도단지팔십전밧게 안되갓지요 그리하야 이다음부터 팔다

못팔겠거던 우리집으로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이튼날부터 날마다 가져옵니다
그러 돈은 그썸짓것 얼마 안되지 마는 썸이 남고 남아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그썸은 다 아 엇더케 하섯슴닛가」

「네 처음에는 어멈도 몇개 먹더니 지금 아조물니고 보기도 실혀합니다 하하...
..... 그래서 동리 사람도 주다가 나종에는 썸을 모아 가며 집안 사람세리의론사
지도 하얏답니다 참 우손일도 만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말도 못하고 피하고
잇지요」

「대체 이모라는 사람은 왜 그러나요」

「아마 그녀자가 처음에는 남의 집에 가서 하인노릇을 하얏다지요 그러자 그의
이모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그의 월급을 미리 취하야 가라고 한달에 두세번이
나와서 주인도 귀치안케 녀기엿고 첫대는 당자가 견딜수도 업섯겟지요.....
선생님」

「오! 그래서 하인노릇은 그만두고 썸장사가 되엿구먼요」

「그렇습니다」

「참 불쌍한데 엇더케 동정할도리가 업슬까요」

「글세요 나도 여려가지로 생각하야 보다가 나 혼자 지내 갈수 잇는 재봉학교라
도 너히 줄까 하얏답니다」

「그런생각도 하섯겟지요」

「음악이던지 기예(技藝)던지 본인 조화하는대로 공부를 식히라고 하얏스나

암만해도 이모가 승락을 아니하닛가 할수 업지요 글세 선생님 저 좀보세요 저
어느날인가 그의 이모를보고 자세한이야기를 하얏더니 그이모의 말이 신애
를 다려갈나거던 신애라는것은 그녀자의 일흔이랍니다 다달이 신애를 길는갑
으로 이십원이던지 삼십원이던지 달나고하니 참 그런사람이 어데잇습니가
..... 누구를 놀리는지」

「아! 아주 지독한 이모인데요」

「아! 그럼은 요 선생님 여의 저의서 소문을 드려보닛까 아 조평관이 낫분사람이
야요 만일 그대로만 둔다면 그녀자는 이모의 밥이 되고야 말것은 정한리치예
요 선생님은 엇더케 구할도리가 업습닛가」

「네! 나 도 엇더케 하던지 구하야 주고 십습니다」

「구해주십시오 선생님! 본인이 불상치안습닛가」

「그런데 그이모의 집은 어데가요?」

「선생님 가보시렵닛가 그러면 어멈을 다리고 가십시오」 「미안합니다」

「아이고 선생님도 참 제가 도로혀 미안하지요 그녀자를 구해주신다니」

그리하야 백호는 어멈을 압세우고 별장을 나와서 자동차로 신애의 집을 차저가
게 되엿다

인천 시내에서 동으로 한십리쯤 나가면 주안(朱安)이라는 곳에 한동가가 잇는대
그집주인 덕보가 사러잇슬때에는 상당한 자산(資産)이 잇섯스나 칠년전에 병사

한후로는 안해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자 회지부지업서지고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었다 지금도 집한채만 남어 있게 되었고 덕보의 안해는 이곳에서도 일흔난 제집으로 덕보가 죽기 전부터 음란한 잔흥이 끝날 사이가 업섯다 요사이는 처음의 정부이든 최가가 도라와서 그 제집의 집에 드러부터 잇다 신애가 어머니를 닮코 이곳으로 딸이 되 온지는 최가가 온후 채일년이 되기 전이 었다

「지금도 신애의 이모와 그의 정부 최가가 안방에서 마주 앉져 술을 먹고 잇섯다
「그런데 나도 짐작은 하지 마는 어데로 도라다니면서 난봉을 피우고 잇섯소……
응?」

「앗다 마누라 부러이야기 하게 덕보라는 남편을 두고나 이런 아희들을 젖먹엿다
니 누구누구야……응」

「여보 당신은 그런 소리는 어디서 드렸소」

「아니 이곳에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업스니 말이야」

「여보 속상하는 소리마우」

「왜 속이상해 또 후리고 십혀 죽겟지」

「쓸데업는 소리마려요 누가 무엇이라 고 하던지 제집이 사랑하는 것은 처음어든
서방이야」

「하하……그러닛가 내가 일등이란 말이지……응 첫째 그리고 덕보는 둘째
또……」

「그럼 내가 어렸을 때에 서울 동신호의 큰 딸로 잇슬 때에 당신이나를 가만 두지 안

헛지……왜 그래서 우리가 내외가 되여서 한때는 동신호의 주인사지 되게 했
섯지」

「참그래 동신호의 데릴사위 되엿는 적도 잇스니」

「여보 그때에 비하면 아조맘씨가 변했스니 그게 원일이요」

「앗다 돌이킬 것이지 무얼그래 고생하면 그러케 되는 법이야」

「여보 내가 었던 말이지요」

「흥왜이래 부처님은 아니 겠지 신애를 썩장사를 식혀서 그 돈으로 술먹는 것 말
이야……하허허」

「아이고 참 세상도 무섭기도 하지 나는 당신을 썩미뎌드니 인제 보닛사 신애의
편을 드는 구료 아마 신애를 마음에 두는 게야」

「쓸데업는 소리말어 신애는 아직 어린애가 아닌가」

「여보 왜이러오 아들이면 모릇가 딸애 어린애가 든 것은 마음을 노을 수 업단 말
이야……하하……여봐요 요새 신애는 아주 모양이 변해져서 남자만 보면

북어진단 말이야」

「흥별소리를 다해 길사에 풀이라든 때만 되면 씻이 피는 것이야 신애로 말할 지
라도 열아홉이니 그러케도 쉬운 일이지」

「저것보아 신애라면 아조 힘을 더러가며 덤비니」

「왜이 모양이야 동리가 창피하게」

「흥창피하다면서 딸모양으로 된 신애의게는 손을 대이지 안는 것이 조처안이

「신애야! 아!니 요것만파러오면 엇절생각이나! 응」
 신애는 고개를숙이더니 썰니는목소리로
 「그래도 그것밖에는 안팔립니다」
 「안팔니거던 왜별장집에안가져가니 거기만가져가면다살것인데 래일부터는
 갑절을더만드러줄러이야..... 흥 못된년」
 「그이십전도 별장싸님이 사주신것이랍니다」
 「아니그러면 썬데서는얼마나팔었니?」
 「썬데서는 하도안팔니기에 그곳에갓섯서요」
 「썬데서안팔니다니? 안팔니는것이아니라 팔니다니지를안는것이지 모양만
 내고분이나바를생각만하는구나..... 지금가지고나가서 어서팔어오너라
 래일싸지두면 썬어버린다..... 자아어서 다파러와」
 「그런무리의말씀마세요」
 「무엇이무리해 어서파러오너라 아니너는 누구의덕으로 오날싸지사러온줄
 아니내가길으지안었니 소문이홍한것을 숨기여주고 남과갓치얼골을들고다
 니게하지안었니 너의근본을말하면 사람죽인」
 「앗!이모님」
 신애는몸서리를치더니 말이맥히며 눈물이흘렀다
 「저러케울닐을 왜 네가할만한일을 하지안느냐는말이다」
 「곳곳으로다녀도.....」

.....응」
 「어허언제누가손을대 남뜻기에 흥한소리좀마러」
 「글세여보 그제집애만업스면 이런소리가나오겟소」
 「앗다그러닛싸 남의집에 하인으로보내는것이조라고 별서여러번이나 말하
 지안혔서.....」
 「썬한소리마우 남의집이 보낸대도 오래잇서야지 그망할년이..... 하! 참
 속상해」
 「아!마누라가 월급만취하러다니닛싸 그러치 신애야무어 잘못된것잇나」
 「여보 남의속도모르고 그것도모다 영감이 귀여우닛싸 그러치안소 만일나
 를버린다면 그야말로 별을바들거야」
 「별이 고무엇이고」
 그때에 신애는 집으로도라왔다 그는썬그릇을 한편에다놋코 쌀독에서 쌀을썬
 내여이남밖에담으니 저녁밥의준비이엿다 방에서 술을마시며 짓거리든지모
 는 사람의소리를듯고
 「누구왔소?」
 하니 신애는 가는목소리로
 「점나다?」
 하고대답하얏다 이모는밤그로나오면서 슬적썬그릇을 여러보니 썬은래반이나
 남잇스며 돈이라고는 이십전뿐이엿섯다 이모의눈빛이 별안간변하야지더니

「네 나는 별장에 출입하는 학교교사인데 우리집에 심부름할 사람이 없어서 당신의 손으로 너자하나를 구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될수잇겟소」

「네 심부름할녀자가 소용되서요」

「그렇소!」

「그렇습닛사 저는입때까지 녀자의중매는 만히해보앗스나 심부름꾼을 중신해보지못했는데요」

「그런것이아니라 별장에서 말삼하시기를 신애라는사람이 그전에남의집에가서본적이잇다하시기에말이요」

그는 신애를력으로가르치며

「신애라는게집애는 이것입니다 요새싼마음이생겨서 모양만내이라한답니다

..... 하하하하」

신애는 그소리에 얼굴이붉어지며 고개를숙이엿고 백호는 보고도모르는체하고잇섯다

「하..... 그것은쓸썪업는말이지마는 여러번남의집에 가서잇서본일도업지안습니다 어데를가던지도세썸모양으로 계속이되여야지요」

「네 그것은 엿재서계속이안되는지 모르겟스나 참스고만잇서주면 이편에서는내여보내지는안홀터이닛사」

「글세요 집에두고보닛사 장사도할줄모르고 거과다가 더구나 엿보는사람사지도잇스닛사.....」

「그러면 팔녀다니엿셔도 석이낫버서 안사드라는말이냐.....」

「아니야요그런건.....」

「그런치안흐면아니 팔닐리치가잇나 자아 어서파러오너라 해다진다 안팔어온다면 너의집소문을」

신애는 그만놀내여 석그릇을 머리에이며

「팔어오겟습니다」

「여보 그석은내가사겟소」

남은석은 팔십전에치엿섯다 백호는 일원짜리지전한장을내면서

「것스를것도업소」

하니 신애의이모는 더러운우슴을쓱우면서

「아! 고맙습니다」

하며 지전을 선뜻바더 치마허리에제이더니

「짜 디릴가요」

백호는 엄숙한어도로

「석은아모래도죠포 좀당신의게할말이잇서서 왔스닛사」

「네네 그렀습닛가 자! 어서여기좀 안즈십시요」

신애의이모는 방석을들고나와서 싸러주더니

「무슨말삼업닛사?」

「그러면 보내시요나의게로 별장에 가서 무려 보면 나의 일은 잘 알 것이닛사」

「그러케하세요 그런데 월급은 얼마나 주시람닛사」

「네 월급은 그전에 바든 적도잇스닛사 그보다는 좀더 내지요」

「그전에는 한달에 십원씩 바뻐섯습니다마는」

신애는 십원이라는 말에 놀내여

「아니 큰어머님 한달에 팔원씩 바지안헛습닛사」

하니 그의이모는 신애를보고 눈짓을하면서

「애무엇을하고잇니 어서저녁이나해라」

신애는 초췌하니러나서 우물가로갓다 백호는 그의이모에하는모양을보고잇다가

「그러면 나는한달에 십오원내지요」

「십오원요 네그럿습닛사서방님」

그의이모는 십오원바람에 서방님소리까지나오며

「그런데서방님 월급은누구의게든지 선금을밧습니다」

하니 백호는 한참무엇을생각하다가

「쫄소 내지요!」

하더니 오원짜리지전한장을 쓰내여주면서

「이것은 차삭(車賃)으로먼저바드시고 를님업도록 보내주시요」

이모는 여간계집이아님으로 오원지폐를바드면서

「서방님 이것은 중개료입니다 그리아십시요..... 하하하하」

「여기주소를적어노코가니 태일안으로 썩보내시요」

※

※

※

※

서울 관수교(觀水橋)를지나서 수표정(水標町)에 김백호라는 문패가 달니여 잇스니 새로지은지얼마아니되는 이층양옥집이였고 문안에보이는 나무들은단풍이되엿섯다 그대문안으로드러가서

「여보시요 좀무러볼말씀이잇습니다」

하며 밧게서 짓거리는사람은 신애의이모이엿다 조곰잇다가 안문이열니면서

오십이넘어보이는 로파한사람이나오더니

「네 누구를차지시요」

한다 신애의이모는 그의하는말을니여서

「저이근처에 김선생이라는 학교교사댁이어데잇닛사」

「네 여지요 당신은어디서 오셧소?」

「네 그럿습닛가 나는 저 부평쌍주안건넌말서왔습니다」

「아아리소 그러면 심부를할녀자를 다리고왔지요」

「네그럿습니다 아이고참 여긴것을 그러케차저다니느라고 이근처를 뽕々도

랏지요..... 하하하하 내가신애의어미랍니다」

「네그럿소 주인에서는지금안게시지마는 말삼을드르스닛사 참고생했소집

찾느라고 어서드러오시요」

신애이모는 다시문밧그로나와서 손짓을하더니

「애! 신애야 이집이다」

하면서 다리고 드러오니 신애는 부끄러워하면서 드러왔다 그리하여 로파의 안 내로 두사람은 사랑방으로 드러와서 안채 되었다 신애의 이모는 방안을 모조리 훑어보더니 우스면서 그로파를 보고

「실례입니다 마는 마님은 이댁.....」

「네나는 이집에 안잠적이지요」

하니 그의 이모는 원일인지 삼짱놀내었다 로파는 다시 말을 쓰내더니

「이집 주인되시는 양반은 아조절은 양반인데 학교교사인만큼 참으로 착하셔서 나의게도 퍼천절하게 하야 주시지요」

「그런데 이집식구는 몇치나 되우」

「식구말이오 우리선생님과 나와 단두사람뿐이지요 선생님의 자친은 수원사 시는데 내가 이집에 온후로 한번 밋게 안오셨다오 언젠던지 나한아썸으로 뻘 편한집이지요」

「그러면 우리설이오면 세식구가 될모양이구료」

「그렇지요 주인께서는 하로종일 학교에 가서 계시고 심부름하는 사람세리 둘 이사는 것과 같지요」

「그것은 참잘도 되엿습니다 신애야 너도 인제는 참스고잇서요 월급도 만히 주시니 아어드렸니」

신애의 이모는 신애를 한참치여 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니 카여 로파를 보며

「그러면 아모썸록 잘다리고 계십시요」

「네다! 서로형편이 갖지요 녀려 마르시요 둘이사이 조케 지내겟스니」

「아모썸록 잘일너 주십시요」

신애도 간곡히 고개를 숙이엿다

「그러면 신애야 밋구어남을 웃보를 여기다 둔다 인제가면 월급이나 차조려오지」

신애는 그의 이모의게 고개를 숙이더니

「큰어머님 될수잇스면 월급을 미리가 절너오지는 마세요」

「암 그럼 용돈만 안업서지면 취하러 안올러이니 안심하여라..... 응아가」

「애! 아가 내가 오는 것이 실켜던 네가 주인이니 너를 좀 밋아서 월급외에도 달々 이용돈을 더 좀 잇도록 하려무나 젊은 주인이니 너도 실치는 안겟지... 하하」

「아이고 참 큰어머님도」

이리하여 신애가 백호집에 온지 벌써 두달은 지났다 별로히 다른 일도 업서 다만 로파의 손을 도와주는 데 지나지 못하얏섯고 너무나 편하얏섯다

더욱이 주인이 하로두시간씩 녀학교정도의 과목을 가르켜주엇스니

가정학(家庭學) 일어(日語) 력사(歷史)

더구나 수신과목에서는 백호가 부인의 정조 처의 심덕(妻의 心德) 어머니되는 사람의 심덕을 자세히 가르켜여 주엇스니 그것이 신애의게는 무엇보다도 반가웠